

‘백세시대’ 전남 인구 10만명당 장수노인 전국 최다

■ 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고령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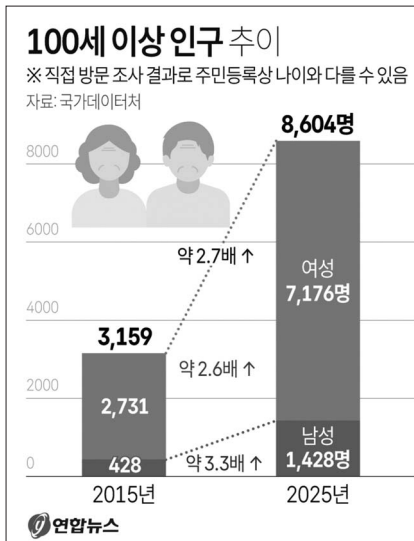
31.8명…고령 91.8명 전국 1위 ‘장수촌’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의료·돌봄 필요

전남지역 100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 10만명 당 3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군은 91.8명에 달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광주에서도 100세 이상 고령자가 203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고령화가 ‘초고령’을 넘어 장수인구 증가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86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3159명보다 5.445명(172.4%) 증가한 규모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도 같은 기간 6.4명에서 17.3명으로 2.7배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의 100세 이상 고령자는 541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



했다. 절대적인 인원은 경기(2052명), 서울(1268명), 경북(559명)에 이어 네 번째였지만, 인구 대비(10만명 당)로는

전남이 31.8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주(30.4명), 강원(28.6명)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의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3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14.5명으로 전국 평균인 17.3명에는 못 미쳤다.

전남에서는 군 단위 지역의 장수인구 비중이 특히 높았다. 고령군의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91.8명으로 전국 1위였으며, 함평군도 77.0명으로 전국 6위, 곡성군은 71.1명으로 8위에 올랐다. 전남의 3개 군이 전국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는 전남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의 의료·돌봄·주거 정책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전남처럼 읍면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돌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실제 전국 10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읍면지역 거주자는 34.2%였다. 재가 고령자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48.5%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41.2%로 뒤를 이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76.3%였으며, 읍면지역에서는 87.1%가 지 높아졌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보면 장수와 함께 돌봄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고령자의 90.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고혈압이 56.7%로 가장 많았다. 관절염

(39.9%), 치매(29.1%), 당뇨병(1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다.

다만 상당수는 시설보다 익숙한 집에서의 생활을 선호했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70.7%가 향후 요양시설에 입소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재가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출입구·계단·문턱 등 주택의 구조와 설비가 47.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장수 비결로는 절제된 식생활이 59.7%로 가장 많았고 규칙적인 생활(44.5%), 유전적 요인(32.1%)이 뒤를 이었다. 평생 흡연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86.9%. 평생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9.6%였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AI 기반 공동 실증·글로벌 진출 모델 논의

광주특별시·중국 광저우시, AI 주제 학술포럼 개최
특별시 출범 첫 교류…생산·공급망 지능화 제안도

청년고용 격차 최대 42%p
“일자리 생활권 확대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국 광저우시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양 도시 간 공동 실증과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연구원과 광주우시사회과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한중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 도시 연구기관 관계자와 산업·정책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기반 첨단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을 주제로 양 지역의 사례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중 교류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광주연구원과 광주우시사회과학원은 지난해 4월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연구자 교류와 공동 학술행사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협정 체결 이후 두 번째 공식 학술교류다.

구정지 주광주중국총영사는 축사에서 한중 양국이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싱크탱크 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총영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

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 지방과 싱크탱크 간 교류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포럼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와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승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조업의 서비스 융합을 통한 산업전환 구상’ 발표에서 지역 제조업이 낮은 부가가치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고, 최종 제품과 산업 솔루션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의 자동차부품과 AI, 센서, 뿌리산업 역량을 결합한 무인 저속특장자 실증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 제조 기반과 AI 기술을 연계할 경우 지역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젠 광저우시사회과학원 지역발전연구소장은 ‘인공지능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발전의 광저우 사례’를 통해 지능형 단일 제품을 비롯해 생산·서비스·공급망 전 과정의 지능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을 이끄는 핵심 경로라고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술개발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을 만들어내는 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연구원과 광주우시사회과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한중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손경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반도체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조성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글로벌협력 분과위원, 정성림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양다ियो 광저우시사회과학원 현대산업연구소장, 한경록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스마트공장 등 양 도시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손경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반도체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조성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글로벌협력 분과위원, 정성림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양다ियो 광저우시사회과학원 현대산업연구소장, 한경록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장예귀 광저우시사회과학원장은 양 기관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원장은 “상시 교류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프로젝트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진 광주연구원 부원장은 “자매도시 30년의 우정이 새로운 30년을 여는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광저우시사회과학원과 연구 교류와 정책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 아시아·오세아니아로

국제식품박람회 10곳 참가

127건·377만달러 수출상담

음료·두부칩·즉석밥 관심

98만달러 구체적 협의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이 홍콩을 교두보로 중화권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역 농수산물식품기업 10개사가 참가해 127건, 37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98만달러 규모는 제품 공급과 거래조건 등을 논의하는 구체적인 수출협의로 이어졌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지역 농수산물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해 수출시장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람회에서는 가보팜스와 담터프렌 비의 음료와 비롯해 쿠키아의 두부칩, 석곡농업협동조합의 즉석밥, 푸른정식품의 조미김 등에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6 홍콩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한 전남광주 식품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가기업들은 현장에서 바이어들과 제품 특성과 공급 물량, 가격, 거래조건 등을 놓고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일부 상담은 구체적인 수출 규모와 공급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까지 진전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상담에는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바이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식품을 유통하는 바이어들도 참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를 통해 홍콩을 거점으로 중화권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통합특별시는 박람회 상담 실적이 실제 수출계약과 선적으로 이어지도록 참가기업별 유력 바이어를 중심으로 후속 협의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제품 샘플 제공과 거래조건 조율 등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신현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유력 바이어와의 후속 상담을 적극 지원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전남본부농업구례교육원에서 2026년 상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 농축협 신규직원 상생교육’을 진행했다.

전남농협, 신규직원 역량 강화 교육

농협전남본부는 20일부 21일까지 이틀간 농업구례교육원에서 2026년 상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 농축협 신규직원 상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과 기영은 농업구례교육원장을 비롯해 신규직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신규직원들이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료 간 소통과 협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농협인 정체성 △아이스 브레이킹 및 팀빌딩 △보험 마케팅 추진 기법 △농협인에게 유용한 홍보 △합계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의 소통법 등 실무와 조직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신규직원들은 함께 채워진 동료들

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지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함께하자는 ‘농심전심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농업인과 조합원, 고객을 위한 농협인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다졌다.

전남농협은 지난 2023년부터 농축협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2회씩 상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직원들이 농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과 조합원, 고객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농축협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